

지역 **메아리**

**김제농기센터, 벼작기수확
수확후관리요령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본격적인 벼 수확철을 앞두고 수확 후 관리가 수확 전 관리보다 수량과 품질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며 벼를 적기에 수확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도 김제시 벼 재배면적은 1만 8,900ha로 작년에 비해 137ha 줄어들었지만 모내기철 가뭄피해 이외의 기상재해나 병해충 발생이 심하지 않아 550kg/10a 당 평년과 정도의 수량이 예상되며 수확작기는 중간생종 벼의 경우 이삭이 낱이 55~60일이 지난 후로 벼 이삭 낱알이 약 90%이상 황색으로 변했을 때로 김제지역은 10월 중·하순경이다.

벼를 조기 수확하면 침미 또는 미숙립이 증가해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쌀겨층이 두꺼워지고 동할립, 기형립, 피해립 등이 증가하여 완전미율이 떨어지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

김제시는 안정적인 자치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직장장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채권압류,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동력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계획 인원은 38명으로 관내(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에 거주하며 신청일로부터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자로 거점별로 근무가 가능한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채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구직등록증 등 소정의 서류(모집공고문 확인)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새정부 신규국가예산 발굴 박차

완주군, 국가예산 발굴보고회... 국정과제 대응 97건 미래 성장동력 사업 발굴

완주군이 새정부 신규 국가예산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완주군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市) 비전달성을 위한 2019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방향 분석과 함께 완주시 비전, 2대 핵심정책, 3대 비전 등 군 정책과 연계한 신규 국가예산 사업 등 총 97건, 총사업비 7,018억원(국비 4,104억)규모의 완주군 미래 성장동력 사업들이 대거 발굴됐다.

이날 발표된 국가예산 사업들은 자체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 대응 과제 발굴보고회 및 2018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보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으로 앞으로 도·부처 의견수렴과 지역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추가발굴을 통해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市)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및 지역발전의 이플 선도사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우리는 지금 새정부 출범으로 완주군 발전의 절호의 기회이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새정부 방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국가예산 확보에 모

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예산에 주민의 소득과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현안들이 대거 반영되고, 2025년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市)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 국가예산 사업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면밀한 준비와 발빠른 대응, 발로 뛰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 국가예산 2,000억원 시대(2015년 2,095억원)를 연 완주군은 2018년 국가예산 3,000억 시대(2017년 2,648억) 달성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정

'태양광 발전시설입지 가이드라인' 등 마련

김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각종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9월 29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

한 주민 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주거지 및 도로(양복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부터 100m 이내 제한, 공공시설(학교병원,관공지)

및 문화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제한하였다.

또한, 폐차장, 고물상, 야적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도로, 하천, 주거지, 공공시설 및 문화재에 따라 100m ~ 500m 이내 입지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김제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보전하고 삶의 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군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2017 무주군 새마을지도자대회가 16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가 주관(회장 황의탁)하고 무주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새마을운동전라북도회 박명자 회장과 회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단체경기, 장기자랑 등의 화합행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실천면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최금자(61세) 씨와 안성면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박미숙(59세) 씨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새마을지도자 안성면협의회 김광식(59세) 씨가 중앙의회 표창을, 새마을지도자 실천면협의

회 최병기(60세) 씨는 도회장 표창을, 무주읍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김말자(55세) 씨와 적상면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유민자(55세) 씨는 군회장 표창을 받았다.

황 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 자리가 새마을지도자회를 더욱 견고히 해주리라 믿으며 우리 군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보다 따듯하고 정감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의탁 회장은 "성숙한 국민 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와 국가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새마을 운동의 기본 방향"이라며 "새마을 가족 모두가 제2의 새마

을운동에 힘써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 새마을지도자대회는 회원들 간의 화합과 새마을운동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84년 4월에 창립돼 2008년 11월에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에서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 문화공동체와 이웃공동체, 경제공동체, 지구촌공동체 등 현안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1천 6백 여 명의 회원들이 해마다 가장 나눔과 우리 차 무료시음회, 농약 공평 모으기 등의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돕기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귀농귀촌 '팜 투어' 진행

완주군, 현대자동차 직원 대상... 귀농인 프로그램 기획

완주군이 현대자동차 직원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팜 투어를 진행했다.

16일 완주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봉동읍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팜 투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퇴직 후 제2의 삶을 미리 준비하기 원하는 중장년층 재직자의 수요에 맞춘 것으로 완주군에 정착한 귀농귀촌인 2018년 국가예산 3,000억 시대(2017년 2,648억) 달성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기술주임으로 근무 중인 송수현(58)씨는 "퇴직 후에도 지역 발전에 도움 되고 개인적 보탬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경험하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특히 완주는 다른 지자체보다 주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할 수 있는 일이 다량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교통,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펼쳐 왔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퇴직 후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는 최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의미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보건소, '10월 사랑, 마음을 담다' 사진공모전 진행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김제시 거주 학생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 홍보 및 관심 고취, 친숙한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생의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이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주제로 10월 사랑, 마음을 담다' 사진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9점을 16일 발표했다.

수상자는 장유진(김제여고), 김수민(원광보건대학교), 김미형(김제초), 김요한(호남대학교), 김예원, 김예은, 윤다희(김제초), 안효은(김제중앙초), 은준원(김제삼산초) 등이며, 영예의 대상은 김제여자고등학교 장유진양으로 결정되었다.

수상자들은 매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어르신과의 활동사진,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사진,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동생과의 사진, 학교 놀이길을 만들어주는 엄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진 등을 접수했다.

사진공모전 심사는 김제교육지원청 Wee센터, 김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시민기자들과 함께 공정하게 이뤄졌다. 수상작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며, 입선자 8명에게도 소정의 참가 기념품이 전달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